

세 집 건너 한 곳 폐업...아, 총장로여!



2년이 넘는 긴 코로나19 팬데믹의 터널 속에 호남지역 최대 중심 상권으로 불렸던 광주시 동구 총장로·금남로 상권이 붕괴 우려를 맞고 있다. 17일 오후 동구 총장로4가의 한 빈 상가건물 창문에 매매·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945년 광주시 동구 총장로에 문을 연 '노포' (老舖) 중화요리전문점 '왕자관'이 폐업했다. 1983년 개업해 광주사람들에게 추억의 장소로 꼽히는 돈까스 전문점 '유생촌'은 전남과 충청, 세종 등 프랜차이즈를 확장했지만, 탕타리인 총장로 본점의 영업은 중단했다. 금남로 일대 직장인들이 즐겨 찾았던 7080 라이브카페 '팝스토리'도 문을 닫은 지 오래다. 이들 점포들의 상가건물은 현재까지도 공실로 남아있다.

한때 호남지역 최대 중심 상권으로 주말이면 사람들로 붐볐던 총장로·금남로 일대가 오랜 경기침체로 활기를 잃었다. 구도심 공동화와 인구 감소로 유동인구가 줄면서 침체의 길을 걷다가, 코로나19 사태가 2년이 이어지면서 공실률이 증가하는 등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총장로1가 입구부터 빈 상가들이 즐비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인접해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곳임에도 1층 상가 4개가 연이어 비어있었다.

평 (3.3㎡)당 공시지가 5300여만원으로 광주에서 평값이 가장 비싼 총장로2가 광주우체국 앞 일대로 마찬가지다. 광주우체국 건너편 4층짜리 건물은 전부 공실인 채 '임대'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평값이 가장 비싸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광주

한 때 호남 최대 중심상권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었던 광주 총장로·금남로 일대 경기침체·코로나19 사태로 공실률 27.7%까지 치솟아 '권리금 없음' 임대 광고 속출 증기부 선정 100억원 규모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기대

우체국 주변 200m 거리에는 10곳이 넘는 가게가 폐업한 상태였다. 빈 창문에는 '권리금 없음'을 내건 임대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었다. 광주우체국 외에도 약속 모임 장소로 여겨졌던 '총파' (총장 파출소) 인근도 20여 개 상가 중 6개 상가가 문을 닫은 채 임대공고를 내놨다.

총장로의 한 공인중개사는 "5년 전만 해도 1층 상가 권리금은 적게는 1억, 많게는 5억까지 갔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권리금이 거의 사라진 상태"라며 "일부 가게들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폐업하고 철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금남·총장로 상권의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2019년 4분기 17.1%에서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 (4분기) 23.2%까지 증가하더니, 지난해 4분기에는 27.7%까지 치솟았다. 코로나 2년 새 10.6% 포인트나 공실률이 늘어난

것이다. 금남·총장로 상권 뿐만 아니라 인근 499개의 상가가 모여있는 중금·금남지하도상가의 공실도 늘었다.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2020년 1월 공실점포는 53개 (10.6%)에서 올해 1월 65개 (13.0%)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실이 늘면서 임대료도 3분의 1토막이 났다. 평균 월세를 20~30% 줄였지만 들어오려는 매물이 줄기는커녕 점차 쌓여간다는 게 총장로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총장로 일대 상인들은 "점점 버티기 힘들어진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총장로의 옛 영광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가 지난해 10월 총사업비 100억원 상당의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제5차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장로와 금남·중금지하상가를 지하와 지상을 잇는 입체 상가로 융합해 도심상권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총장로 1~5가 일원에 다양한 판매장터와 볼거리를 제공해 다양한 연령대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총장라온(RA-ON) 페스타'와 코로나로 침체에 놓인 지역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 지역민을 위한 '총장문화데이'를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김중현 총장로 상인회장은 "올해부터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면 자연스레 주요 구매층의 방문이 늘고 덩달아 상권이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호남 최대 중심상권으로 불렸던 총장로 상권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이탈리아 베니스서 만나는 5·18 특별전 ▶16면
- 북스 - '꽃잎 한 장처럼' '문명의 자연사' ▶14·15면
- KIA 로니·김도영·김석환 맹활약 ▶18면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70기 수습기자 모집

올해로 창사 70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특독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증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어가길 장의적인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모집부문	전형절차	자격
수습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전형일정		
전형방법	일정 및 장소	
지원서접수	3월 14(월)~28일(월)	방문 및 우편 메일(chongmu@kwangju.co.kr) 접수
서류전형 발표	3월 31일(목)	개별통보
심층면접	4월 4일(월)	본사 10층
최종합격자 발표	4월 6일(수)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	양식 광주일보 홈페이지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A4 1장 이내
외국어 성적증명서	TOEIC 또는 TOEFL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성적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접수처: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光州日報社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4명 인선 마무리...오늘 공식 출범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인수위원 24명의 인선이 마무리됐고, 이르면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관련기사 3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3개 분과의 간사 및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전문위원, 실무위원 검증은 마치는 대로 내일 오전 현판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2분과 간사 이상양, 인수위원에 왕윤중·유영환·고산, 일자리 창출과 규제혁신, 부동산 등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간사에는 이창

양(60)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인수위원에는 왕윤중(60) 동덕여대 교수, 유영환(51) 전 SK 혁신그룹장, '우주인' 고산(46) 타이드인스 티튜트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떨감처럼 다 태워야 되겠습니까?"

정신없고 풍요로운 광주
광주대안민중투쟁위원회

내가 버린 담배꽂초와 무분별한 취사가 소중한 산림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 성냥, 라이터는 두고가고!
- 취사대신 도시락을 즐기!
-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

산불예방! 녹색미래를 지키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광주광역시
GWANGJU CITY